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독어교육과 교과과정 개발*

한기상, 이광숙, 권오현¹⁾

(서울대학교)

Han, Ki-Sang., Lie, Kwang-Sook., & Kwon, Oh-Hyun. (1999).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age of inform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 29-4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Education, and to develop a new curriculum for the age of information. With this goal, this study suggests a list of new courses necessary to German language learners in German language programs. The study also discusses some implications for German language education using computers, Internet, e-mails, videos, and CDs.

I. 들어가는 말

현 시대에는 컴퓨터(Computer), 인터넷(Internet), 전자 메일(E-Mail), 비디오(Video), 콤팩트디스크(CD)등의 매체가 다양하게 개발됨은 물론이고 이들 매체의 발전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매체들이 대학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계속 보급됨으로써 이제는 중/고등학교 학생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교육종합 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

들도 이들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대학의 교과과정도 이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시대적 산물 Kinder der Zeit”인 교과과정이 주변의 상황조건들에 부합하지 못하면 현실과 유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참조, Wai Meng Chan, 1999: 1)

한편 우리 주변의 다른 여건들도 대학 교과과정이 시대적 필요성에 부합하여 변하도록 요구한다. 대학의 어문계열 교과과정이 지금까지 언어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제는 언어를 ‘도구’로 설정함에 따라, 독어교육과 교과과정도 해당 언어뿐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지역 사정과 문화도 다루어야 하는 추세이다. 즉 지역학 및 문화의 소개, 보급, 연구 등이 한층 요구되고 있어 각 대학의 지역학이나 국제 교류에 관한 대학원 과정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는데 독어교육과도 그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체해야 한다. 이것은 매체의 발달로 인한 각 지역간의 의사소통, 교류 등이 활발하게 된 현재의 세계적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와 더불어 대학교육 자체의 과업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예전의 엘리트 중심의 전문인 양성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반 상식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대중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전체 이수학점의 하향조정(서울대의 경우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복수전공으로 인한 전공 이수학점의 최소화(36학점), 또 학부제의 강화 등의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다시 말하자면 학부에서는 일반 교양 교육이 중시되고 대학원에서 전문 영역 교육이 실시되는 개혁적 교과과정 모델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정에서 독어교육과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미래의 정보화시대에 적절한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을 기획하기 위해 먼저 현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전망적인 제안을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교과과정의 전제 조건

종합대학 내에서의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은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와 비교하여 사범대학의 정체성(Identität)이 뚜렷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의 목표는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 양성에 두어야 하며, 독일어 교사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독어독문학과가 전공 지식 자체의 연구를 지향하는 반면에 독어교육과는 그러한 지식의 활용 측면에 더욱 무게를 둔다. 이에 대하여 카셀대학의 노이너(G. Neuner, 1995: 86)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어교사 양성교육에서 전공지식은 자기목적(Selbstzweck)적이지 않다. 전공지식은 미래의 직업활동을 준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즉 학교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독일어라는 과목과 연계하여 지식이 축적되고 실제 능력이 배양되고 입장과 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과목학습을 통해 삶을 의미있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 각각 사회가 지닌 견해들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일어교사 양성교육은 전공지식이나 언어구사능력과 더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중개하는 능력을 함께 키워주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독일어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독일어의 음, 어휘, 구조면에서 주요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독일어를 실제로 말이나 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독일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세부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대표적인 것을 이해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각 대학의 독일어과 교과과정 중 언어 습득 과목들이 독일어의 문법을 가르치는 데에 국한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독일어 교사의 역할도 문법 전달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언어든지 외국어교사는 그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언어가 쓰이는 지역에 관한 기초 지식에 통달하여야 한다.

독어교사도 구어로나 문어로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려면 언어의 4가지 기능(Sprachfertigkeit)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분야에서 균형잡힌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각 교과목에서는 교과 내용이 이 네가지 기능과 접목되

어 습득/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어과 교과과정은 독어 교사를 목표로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독일 언어에 관한 기초지식, 독일어의 실제 구사 능력, 독일 지역 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관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한국의 독일어과 각 교과목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각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공을 중심으로 때로는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성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에서 복수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 전공 과목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이 36학점으로 낮아졌다. 99학년도 서울대 독어 교육과 졸업생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 대부분이 전공 과목에서 60학점을 이수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공과목 수강생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목이 3학점인 것을 감안하면 대강 12과목을 이수하면 독일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학부에서 전공 과목 12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독일어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양적으로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어교육과 학부 교과과정은 독일어의 어학이나 문학의 전문 지식보다는 언어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습득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이 전자 매체를 이용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자 메일의 사용이 급증하고 독일로의 어학 연수와 관광이 활성화되며, 독일 상사나 회사와의 활발한 무역거래로 인한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느때 보다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어능력 중심의 교과과정 편성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볼 때,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은 독어교사양성을 제1차 목표로 하고 위의 실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배양을 제2차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목표는 독어교사의 수요가 정체된 현 실정을 감안해 보면 현실적으로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학생들이 독어교육과를 지망하게 된 동기가 독일어 전공과목을 원하기보다는 서울대학교를 선호하여 독어교육과를 택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더라도 2차 목표도 현실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은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언급한대로 독어과를 지원해서 입학하는 학생보다 점수에 따라 독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²⁾ 서울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는 금년(1999년)에 학과 설

2) 2000학년도 대학 입학 시험 면접에서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선택한 학생은 독어교육과 지원자 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독일어를 배운 학생들

립 40주년을 맞게 되며 이제까지 약 110 여명의 교사양성 (독어교사는 90여 명 정도)등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교과과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여 독어교사 양성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Ⅲ. 현 교과과정 분석

1. 교과과정 변천 과정

새로운 교과과정의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재의 교과과정이 있기까지 교과과정 변천사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의 교과과정은 표(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독어교육과에 개설된 과목은 크게 교과내용학(Fachwissenschaft)과 교과교육학(Fachdidaktik)으로 분류되고 교과내용학은 다시 기능지향적 과목과 학문지향적 과목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과목 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몇차례의 교과과정이 개편되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교과과정의 개편이 교직관의 변화와 맥을 함께함이 드러난다. 독어교육과 창설이래 처음 도입된 교과과정의 정신은 인문적 교양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참조, Karl-Richard Bausch, 1995: 100-103).³⁾ 사범대학의 다른 학과들처럼 독어교육과도, 교사는 기능적 능력을 갖춘 직업인이라기보다는 높은 식견과 훌륭한 품성을 갖춘 사표(師表)로서 양성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인문적 교양을 키워주는 주요 수단인 문학 강의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 외국어교육의 방법론으로 공인되었던 문법번역방법(Grammatik-Übersetzungs-Methode)이 언어기능의 전수를 넘어 고귀한 내용의 전달에 치중했던 사실과도 서로 부합된다.

도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독일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어 실력이 너무 미미한 정도이었다.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으로 독일어를 선택한 학생의 수는 소수이었다.

3) 이 교과과정은 Karl-Richard Bausch의 '문헌학적 모델 philologisch-ausgelegtes Modell'에 가깝다. 문헌학적 교과과정 모델은 직업전문가(Expert)의 배출보다는 인문적 교양을 두루 갖춘 전인(Generalist)을 양성하는 데에 더욱 치중한다.

표(1):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현재 교과과정

(* 굵은 글씨: 필수과목)

대분류	내부 분류	과 목 명(학점)	비 고
전공교과	언어(독일어) 습득	709.228 학교독문법(3) 709.203 기초독어회화실습(2) 709.204 중급독어회화실습(2) 709.222 학습독작문(3) 709.430 고급독어회화/토론연습(2) 709.314 시사독어(2) 709.319 독어청취연습(2) 709.429 텍스트강독연습(2)	8과목 18학점
	독어학	709.304 독어학개론(3) 709.303 독어사(3)	2과목 6학점
	독문학	709.221 독일문학의 이해와 문학교육(3) 709.229 독일청소년문학(3) 709.231 독소설강독(3) 709.301 독문학사1(3) 709.302 독문학사2(3) 709.306 현대독시강독(3) 709.307 고전독시강독(3) 709.408 최근독문학강독(3) 709.415 고전독희곡강독(3) 709.316 현대독희곡교육(3) 709.406 독문학비평(3)	11과목 33학점
	지역학	709.224 독일학 개관(3)	1과목 3학점
교과교육학		709.428 독어교육 및 독어교수법(3) 709.317 독어교육세미나(1) 709.320 독어교재연구(3) 709.427 독문학교수법(3) 709.318 독어학습평가(3)	5과목 13학점

총계: 27과목, 73학점 (*필수: 6과목 17학점) 전공내용: 22과목, 60학점 (*필수: 4과목 11학점) 교과교육: 5과목, 13학점 (*필수: 2과목 6학점)

그리하여 사범대학의 대부분 교육과정은 교과내용학의 학문지향적 과목(문학, 어학)과 일반교육학(교직과목)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들면서 인문적 교양 위주의 교과과정에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의 진원지는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식견과 품성을 겸비한 전인(全人)에 만족하지 않고 수업을 조직적이며 기능적으로 통제/운영하는 전문인에 모아지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뛰어난 인품과 높은 지식 뿐만아니라 수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기능을 지닌 사람만이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게 되었다. 이러한 교직관의 변화는 교사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편에 자극을 주게되었는데 그것은 전공 내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목을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독어교육과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체적 교직과정모델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다음의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 일반교육학에서 제공되는 교직과목과는 별도로 전공내적 교육학, 즉 교과교육학(Fachdidaktik)과목의 개설이 이루어짐.(독어교수법개론, 독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 기존의 독일문학 강의가 순수 내용지향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내용을 다루는 형태로 변모됨(독일낭만주의의 수용과 문학교육, 독일 사실주의의 수용과 문학교육 등)

이러한 변화는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와 구별되는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의 특성화에 대한 요구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학문영역으로서의 독어독문학(Germanistik)이 본질 중심의 내부관점(Inlandsgermanistik)과 한국-독일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부관점(Auslandsgermanistik), 즉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interkulturelle Germanistik)으로 분화되면서 설득력을 얻게 된다(참조, Alois Wierlacher, 1985: IXff) 그러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교사양성이라는 기본 목표와 그 교사가 실제로 교육행위를 수행하는 고등학교의 현실과 연결지어 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관계적 관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문학 영역에 편중되어 독어교사(Deutschlehrer)보다는 문학교사(Literaturlehrer)의 양성에 적합한 교과과정이라는 점, 둘째 과목구성이 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이나 수업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90년대 후반에 들면서⁴⁾ 새로운 교육과정 변경이 추진되었는데 이 때의 변화는 ①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주는 과목의 증설(고급독어회화/토론 연습, 독어청취연습 등 신설), ②교과교육 과목의 확대(독어학습평가, 독어교육 세미나 등 신규 편성), ③기존의 사조중심 문학강의 폐지(독일 고전주의의 수용과 문학교육 등 5개 문학강좌 폐지)로 요약된다. 이번의 변경도 80년대의 개편과 큰 줄기에서는 동일하지만 더욱 언어기능중심으로 편성된 특징을 지닌다. 특히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표현주의, 노벨레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수용과 문학교육을 담당하였던 과목들(5개)이 일괄적으로 폐지되고 고급 의사소통 위주의 과목이 신규 편성된 것은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의 기본정신 중 하나이었던 인문적 교양이 언어기능 쪽에 많은 부분 자리를 할애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무튼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독어교육과의 교과과정의 변천은 <인문적 교양중심 → 관계적 관점중심 → 의사소통 기능중심>으로 요약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과목 구성을 토대로 확대/보완하는 형식을 취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변화이든 그기에는 시대적 요구가 출발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교과과정이 시대적 상황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지금의 교과과정도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을 어느 정도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개편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2. 현 교과과정 분석 및 제안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은 전공교과와 교과교육학으로 구분한 후 전공교과를 36학점 이상, 교과교육학을 9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졸업 최소 학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전공 학점을 이수하는 데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복수 전공을 용이하게 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규정이기도 하지만 자칫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교과교육학 분야는 13학점 개설 중 9학점이 최소 이수학점이니 어느 정도 균

4) 1997년, 1998년 2회에 걸쳐 과목 통폐합 및 신설이 이루어져 오늘의 교과과정(표 1)이 형성되었다.

형이 잡혀 있다고 보이지만 전공교과의 경우에는 총 60학점가운데 36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개설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질있는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심화된 전공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사료된다.

전공교과는 다시 내적으로 언어습득, 독어학, 독문학, 지역학 분야로 세분되는데 이 네 분야에 교과교육학을 첨가하여 5영역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과과정 영역별 과목 분포

영역	언어습득	독어학	독문학	지역학	교과교육	전체
과목수	8	2	11	1	5	27
학점수	18	6	33	3	13	73
학점비율	24.66 %	8.22 %	45.20 %	4.11 %	17.81 %	100 %

영역별 과목 분포를 나타내는 백분율을 보면, 언어습득과 교과교육 과목이 적지않은 부분을 점유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어교사의 자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능숙한 의사소통능력과 수업방법 상의 전문지식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비록 “독일어 교사 양성이 기능론(Handwerkslehre)에 매달려 언어소통능력 훈련과 교수법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Gerhard Neuner, 1995: 91)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중등학교에서 독일어교사의 실제 수업 행위가 언어능력 전수에 한정된다는 현실에서 보면 교사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서 언어습득과 교수법영역이 강화되는 현상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 언어습득과 교수법을 묶어 기능분야(A)로 독어학, 독문학, 지역학을 묶어 지식분야(B)로 나누면 A와 B의 학점 비율이 42.47% : 57.53%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잡힌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어교사의 실제 언어소통능력이 요즈음 무척 강조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언어능력을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독일문화원 등 외부기관에 의존하여 습득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A와 B의 비율을 5:5로 맞추고 여기에 증가하는 비율을 집중적으로 언어습득에 할

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언어습득과 교수법 영역(A)을 제외한 채 교과내용학 분야(B)만을 독립하여 살펴보면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은 대단히 불균형적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영역이 집중적으로 문학분야에만 할애됨으로써(독문학 : 독어학 : 지역학 = 45.20% : 08.22% : 04.11%) 학생들이 전공의 다양한 내용영역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중 지역학(Landeskunde) 분야는 전공 교육의 이념에 무리없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문학과 어학의 균형을 잡는 문제는 한번 깊이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교과과정에서 내용학으로서의 문학/어학에 배당된 비율을 비교할 때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의 문학 : 어학 백분율(45.20 : 8:22)은 인근 학과인 불어교육과(33:33% : 13.04%), 영어교육과(31.03% : 27.58%), 경북대 독어교육과(20% : 10%), 부산대 독어교육과(27.03% : 29.73%), 교원대 독어교육과(35.78% : 27.52%)와 비교하여 차이가 대단히 심하다. 어학 과목의 빈곤화는 자칫 기능영역(A)의 교육효과를 함께 저하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언어습득의 많은 부분은 독어학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초학문으로서의 언어학 영역이 부실화되면 효율적인 언어습득 혹은 언어의 체계적인 중개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나타난다.

이 외에 현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제안이 가능하다.

- 지역학 영역 과목의 확충이 필요함: 전통적인 문헌학 중심 교과과정에서 지역학 혹은 지역 사정은 본질적 교육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실제적 의사소통이 더욱 중시되는 오늘날에는 목표어(Zielsprache) 구사능력과 더불어 그 목표국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된다. 그리하여 현대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문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문화능력의 습득)가 의사소통능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우리 삶의 국제화 현상은 언어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소통문제를 제기한다. 간헐적으로 만나는 외국인과의 대화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일정기간 낯선 곳에 체류하면서 직접 낯선 문화의 행위맥락 속에 들어가 그들과 틈이없는 의사소통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이 언어의 정복을 넘어 낯선 문화 속에서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제스춰 등)을 키워주도록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그 나라의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 매체 지향적 교수법 과목의 개설이 필요함: 하루가 다르게 컴퓨터에 관한 기술은 변화, 발달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 맞추어 컴퓨터의 활용 방안도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어교육 분야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교사가 반드시 지녀야 한다. 컴퓨터 기술의 지대한 발전과 그것을 이용한 외국어교육의 유용성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에 컴퓨터와 관련된 교과목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 진행,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수업자료 개발, E-Mail을 이용한 수업동기화 고취 등,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수업에 응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교과목은 독일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서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에 이용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컴퓨터와 독일어교육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적절한 활용전략을 수립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
- 기초적 학문 영역의 확대 설정: 독어교육학은 실용학문으로서 대단히 특수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 순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리하여 독어교육과의 핵심 영역을 기초학문을 통해 인근 영역과 연결지을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때 전공의 응용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초학문 영역인 독문학과 독어학 외에 보다 다양한 학문 영역과의 학제적(interdisziplinär) 결합이 요구된다. 외국어교수법, 외국어교육행정, 제2언어습득론 등 일반 외국어교육 영역이나 문화간 소통이론, 수업소통이론, 기호학 등과 같은 의사소통 관련 영역 그리고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 매체학, 문화학 등과 같은 새로운 방향의 독어독문학 전공 영역이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물론 이러한 영역들은 포괄적이기에 단일 학과 교과목에 개설하기 힘들면 교양과목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여 학생들에게 일반론을 토대로 특수한 분야를 습득/이해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V. 새로운 교과목 제안

1. 언어 습득 과목

1) 독일어 발음 연습

독일어 발음은 한국 학생들에게 비교적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독일어 특유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이 특유 발음의 조음 장소와 조음 방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초보에게 음성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과분한 일이다. 그러나 조음 장소와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따라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학습초기에 나타나는 영어식 독일어 발음을 정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이 영어식 [r] 발음을 독일어에 너무 과장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발음의 독일어의 음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영어 발음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독일어 발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한국어에서 해당 음이 없는 독일어 발음 [f, v, c, x]등 이나 한국어에서는 세분화되지 않는 발음 [r, l] 등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영어와 독일어 발음의 간섭 현상, 한국어와 독일어 발음의 간섭 현상도 도표 등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음성학 지식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음 연습만 따로 하게 되면 수업이 자칫 지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노래, 시, 동화, 청소년의 작품 등에서 간단하며 흥미로운 텍스트를 수업에 사용한다. 이러한 텍스트들을 이용하여 발음 연습 뿐 아니라 받아쓰기 연습을 하게 되면 발음과 정서법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발음 연습이 들어 있는 비디오, 카세트 등을 들려 주어 수업을 하게 되면 듣기 기능, 따라하기 기능이 훈련된다.

2) 독일어 문법 연습

문법에서는 학습의 양과 수준에 따라서 초급과 중급으로 나눈다. 또 이제까지 어미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중심 학습을 넘어서 문장 구조 파악이 중요시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문맥과 연관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언어 습득, 텍스트 독해 이해에 주요한 문법 사항, 문장 구조등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 각 문법 사항이 한국 학

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속법 2식, 현재 완료등은 독일에서 발간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서는 학습초기에 도입된다. 이러한 순서가 한국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것 인가는 충분히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초급단계에서는 문법이나 문장구조는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위주로 배울 수 있다. 중급 단계에서는 짧은 단편등 실제 문학 작품 텍스트에서 문장 구조 파악 연습을 하고 문맥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 읽기와 이해 기능이 문법 지식과 함께 습득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명령어의 형태나 구조를 제시하고 연습하게 하며, 이들 명령어가 일상어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 볼 수 있다.

3) 독일어 텍스트 독해와 요약

일상 생활에 쓰이는 신문 광고, 안내문, 지침서, 신청서, 인터넷등 다방면의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독일어나 한국어로 글로 요약하는 것이다. 초급단계에서는 한국어로 요약하고 중급단계에서는 독일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목은 독일어로 텍스트재생(Textwiedergabe)에 해당하며 읽기와 쓰기 기능을 훈련하는 과목이다.

한국 학생들이 독일어 텍스트의 번역은 정확하게 잘해도 그 다음 학습과정인 텍스트의 대의를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데는 아주 약한 편이다: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텍스트나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말이나 글로 다시 전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텍스트이든지 전체 내용을 일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기 글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주고 이 질문에 대해서 글로 답할 수 있다. 이때에 교수법적인 면에서 텍스트에 관한 질문을 먼저 읽고 난 후에 전체 텍스트를 읽게 할 수 있다.

또 텍스트의 주요한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텍스트에서 주요 요지를 파악하고 이 대목을 텍스트에서 발췌할 수 있는 연습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급이나 중급단계에서 전체 내용 파악뿐 아니라 요지 발췌 기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4) 독일어 텍스트 청해와 요약

3)에서 언급한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텍스트를 원어민에게서 직접 듣거나 카세트, 비디오, CD 등에 녹음된 것을 듣고 독일어나 한국어로 말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 과목은 독일어 Nacherzählen에 해당하고 듣고 말하는 기능을 훈련하는 과목이다. 텍스트 독해 과목에서와 같이 초급단계에서는 한국어로, 중급단계에서는 독일어로 요약할 수 있다. 듣기 연습을 할 때 우선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후에 주요한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 연습을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영어의 토폴이나 토익에서 듣기 연습과 같은 형태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

전체 텍스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로 대답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 때에 교수법적인 면에서 질문을 먼저 들어 전체 내용이 무슨 주제에 관한 것을 추측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전체 텍스트를 듣게 할 수 있다. 듣기 훈련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말하기를 제대로 하려면 정확하게 잘 듣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듣기 훈련이 습관이 되어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듣기 연습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독일어 번역 연습

한국 학생들은 외국어를 학습에서 거의 모든 문장뿐 아니라, 단어도 일일이 번역을 통하여 배우는 학습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실 외국어 학습에는 직독 직해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번역을 통해서 실제의 의미가 많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낭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전통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독일 지역사정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풍습, 음악, 법에 관한 텍스트를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하여 번역할 수 있다. 번역에 그치지 않고 주요 내용을 한국어나 독일어로 다시 요약할 수 있다. 중급에서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 텍스트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훈련도 가능하다.

2. 교과교육학 과목

1) 독일어 교수법

독일에서 외국어 교육의 역사, 외국어 교수법 변천사, 외국어교수법 종류, 교안 작성법, 수업 언어로서의 독일어, 교재 연구뿐 아니라 카세트, Folie, OHP,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등 보조자료에 관한 실태 등을 개괄한다. 한국에서 독일어 교육의 역사, 독일어 발음, 문법, 어휘를 가르치는 방법, 고등학교 교재 등을 주제별로 다룬다. 학생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실제로 교안을 작성해 보고 수업을 진행해 본 후에 그 수업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도 있다. 교생실습에 관해 경험을 들어보고 실습에 대비할 수도 있다.

2) 독일어 교재 분석

교재 연구에 관한 이론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로 독일에서 편찬된 교재의 종류와 변천을 다룬다. 한국 고등학교 현행 교과서를 주제별, 문법, 어휘, 연습문제 등에서 분석한다. 한국 고등학교 수업 상황과 실정, 고등학생에게 적당한 주제, 내용과 고등학교 교과서에 맞는 어휘수, 문법, 문장 구조, 연습문제 등에 대해서 토론하여 개선점과 제안점을 모색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이용한 시각, 청각 보조 자료들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이용가능성이 있는가를 조사, 검토한다. 교육부에서는 제8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조 교재로서 CD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⁵⁾

3) 독일어 학습 평가

독일어를 배운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운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 각 단원의 연습문제의 다양한 형태를 조사 분석할 수 있다. 독일어 시험, 테스트의 종류: Cloze Test⁶⁾, C Test 등⁷⁾ 유형을

5) 1999년 12월 22일 중앙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독일어 교육과정 협의회가 있었다. 외국어 고등학교 교재의 편찬 작업에서 CD의 보조 자료 활용을 고려하는 중이다.

6) 텍스트나 지문에서 매 4번째 또는 5번째에 해당하는 단어를 주지 않고 괄호를 한 형태이다. 이 괄호에 학습자가 알맞는 단어를 채우는 테스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아직 많이 응용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

배운다. 독일 각 대학 언어 시험에 관한 규정과 형태; 독일문화원, 시민대학 (Volkshochschule) 등 공공 기관에서 이용되는 독일 Zertifikat, Diplom 시험 유형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 교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 형태, 테스트 유형을 조사하여 토론할 수 있다.

4) 정보 매체의 이용

OHP, 비디오, 컴퓨터, CD, 이 메일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고 탄뎀 Tandem수업⁹⁾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교육용 영화 등을 보고 이에 대해 토론하거나 감상을 쓸 수도 있다. 이 메일이나 탄뎀 수업을 한 후에 정기적으로 모여 진행 상황에 관해 한국어나 독일어로 보고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매체를 이용하기 전에 매체 사용에 관한 방법, 기술, 준수사항은 미리 배운다.

다 (참고 Henrici/Riemer 1996, 355).

- 7) 텍스트나 지문에서 매 2번째 단어의 철자를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을 쓰게 하는 테스트 형태이다. 이러한 연습 형태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급이 안 된 상황이다 (참고 Henrici/Riemer 1995, 355).
- 8) 이들 시험의 형태는 분야와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Zertifikat Deutsch als Fremdsprache, Zentrale Mittelstufen-Prüfung, Zentrale Oberstufen-Prüfung, PNdS (Prüfung zum Nachweis deutscher Sprachkenntnisse), Prüfung Wirtschaftsdeutsch, Kleines Deutsches Sprachdiplom, Großes Deutsches Sprachdiplom 등. PNdS는 DSH Deutsche Sprachprüfung zum Hochschulzugang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Henrici/Riemer 1996, 376이하에서는 Bielefeld대학 Sprachzentrum에서 1985년에 시행된 외국인을 위한 독일 어학 시험의 Einstufungstest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 9) 탄뎀은 두 사람이 같이 타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 단어가 언어 수업에 상징적으로 적용이 된 것이다: 탄뎀이란 두 언어 그룹의 학생이 서로의 언어를 균형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 수업이다. 공식 학교에서 보다 독일에서는 어학원등에서 꾸준히 실시되고 있으며 이 수업 형태는 인터넷등 새로운 정보 매체를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독일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이다. 독일에는 보훔 Bochum에 탄뎀을 할 수 있는 본부가 있다.

3. 내용학 및 기저학문 과목

1) 비교문학

외국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문학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리하여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을 하나의 장에서 만나 두 문학의 영향관계, 공통점, 차이점 등을 인식시켜 주는 비교문학 강좌가 필요하다. 현대와 같이 문학이 다양한 세계와 연결되고 그런만큼 많은 담론들이 형성되는 사회에서는 공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문학세계를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학이 일반적으로 담론들간의 통합가능성을 제시해 주듯이, 문학세계에 대한 비교문학적 이해는 비단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재생산적 응용가능성까지 함께 열어 준다.

2) 매체와 문학

볼츠(Norbert Bolz, 1993)의 「쿠텐베르크 은하제국의 끝에서」가 보여주듯이 현대에들어 문자매체의 힘이 위축됨과 더불어 매체 활용의 가능성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문학도 문자에의 고립에서 탈피하여 영화, TV, 사이버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매체와 문학 강좌는 문학과 영화, 문학과 극예술, 문학과 컴퓨터 등의 관계를 상호매체적(intermedial) 상황 속에서 다루는 과목이다.

3) 현대언어학이론

지금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에 어학강좌는 독어학개론과 독어사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좌수인데 우선 강좌수를 확대한다면 독어학 내의 영역 세분화(독어음운론, 독어의미론 등)보다는 일반언어학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언어학은 상당히 높은 이론화수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좌로서 접하지 못한 학생은 체계적인 언어학지식을 형성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4)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는 전공학문 자체의 연구보다는 전공지식의 중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과의 정체성은 내부관점(Innenperspektive)이 아니라 외부관점(Außenperspektive)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문화사이의 관계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상호문화적 독어독문학이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으로 편성하여 포괄적으로 강의할 필요가 있다.

5) 언어습득론

독일어의 습득은 개별 언어에 관련된 측면과 더불어 보다 포괄적인 언어 자체의 습득 혹은 모국어 이후의 제2언어 습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독어교육과에서도 일반적인 언어습득이론에 대한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현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미래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몇가지 과목을 제안하였다. 물론 위에 제시된 교과목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이와 다른 교과목도 검토될 수 있고, 또 교과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전자 메일, 인터넷 등의 이용으로 국제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번역을 위주로 진행된 독일어 수업방법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 a) 우선 각 과목에 대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언어습득에서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으면서도 한국 실정에 적합하며 한국 학생의 취향에 맞는 텍스트가 개발되어야 한다.
- b) 가르치는 교수 요원이 구어나 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들이 수업언어를 되도록 독일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어려운 분야나 이론에서는 한국어로의 설명이 불가피하나 독일어를 수업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c) 교과과정의 목표, 수업 내용이 독일 언어, 지역사정, 이론을 다루어도 한국어, 한국의 지역 상황 등을 항상 고려하고 연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 자국뿐 아니라 목표 대상인 독일어, 독일 나라, 독일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맹목적인 선망이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독어교육과 교과과정이 이러한 상호문화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을 보다 질적인 정보화 시대의 언어 교육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 작업은 노이너교수(Gerhard Neuner, 1995: 96)의 지적처럼 “결코 종결될 수 없으며 힘들고 실망을 안겨주는 과정 ein nie abgeschlossener und oft mühsamer und frustrierender Prozeß”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교과과정 모델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지 말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선입견없이 고려해야만 새로운 교육과정은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예측이 함께 어울려 보다 나은 교과과정을 구성하려는 지향이 항상 살아 있을 때, 그 학과는 비로소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순임 (1998). 전남대 독일언어문학과 교과과정 개발. *독어교육*, 12, 49-81. 서울: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박이도 (1999). 한국의 독일어 교육 100년, 결실있는 말교육을 위한 방향모색 및 논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4, 182-224. 서울: 한국독일어교육학회.
- 서울대학교 (1997).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서울대학교.
- 정시호 (1999). 사범대학 독일어 교육과의 교육과정 개혁론. *독어교육*, 18, 217-230. 서울: 한국독어독문학 교육학회.
- Bausch, K.-R. (1995). Zur Entwicklung von Curricula: Problemaufriß, Thesen, Modelle. In: *Reformdiskussion und curriculare Entwicklung in der Germanistik. Internationale Germanistentagung des DAAD*, Kassel, 97-104.
- Bolz, N. (1993). *Am Ende der Gutenberg-Galaxis*. München: Wilhelm Fink
- Chan, W. M. (1999). Autonomie und prozedurale Kompetenz. Elemente eines neuen Curriculums für DaF in der Sekundarstufe. In: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n Fremdsprachenunterricht*, 3. Jg. Nr.3, Jan./1999.
(전자잡지: <http://www.ualberta.ca/~german/ejournal/beitra9.htm>)
- Henrici, G. U., & Riemer, C. (1996). *Einführung in die Didaktik des Unterrichts Deutsch als Fremdsprache mit Videobeispielen 2 Bde*, Baltmannsweiler: Schneider.
- Neuner, G. (1995). Grundlagen und Prozesse der Curriculumentwicklung in der Ausbildung ausländischer Deutschlehrer. In: *Reformdiskussion und curriculare Entwicklung in der Germanistik. Internationale Germanistentagung des DAAD*, Kassel, 85-96.
- Neuner, G. U., & Hunfeld, H. (1993). *Methoden des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s*, Berlin u.a.: Langenscheidt.
- Wierlacher, A. (1985). *Das Fremde und das Eigene. Prolegomena zu einer interkulturellen Germanistik*, München: iudicium.

■ Zusammenfassung

Vorschlag des Lehrplans (Curriculums) für die deutsche Abteilung

Die Erfindung der Eletechnik erleichtert heute den Umgang mit Menschen auch in entfernten Ländern. In der Folge gehören die Medien wie Computer, E -Mails, Videos und CDs nicht mehr zu den Kommunikationsmitteln der Fachleute, sondern finden immer mehr ihren Gebrauch im täglichen Leben. Die Medien sind auch für Schüler und Studenten leicht zugänglich und werden als notwendige Hilfsmittel zum Unterricht angesehen und gebraucht.

Es ist höchste Zeit, dass die deutsche Abteilung den Umständen entsprechend ihren Lehrplan verbessern soll. Zur Verbesserung des Lehrplans soll zuerst der Zweck des Lehrplans der Abteilung geklärt werden: der Lehrplan der Abteilung dient primär der Ausbildung des Deutschlehrers an Schulen und zielt sekundär auf die allgemeine Bildung der Studenten, die in dem Zeitalter der Massenmedien die deutsche Sprache im Hinblick auf gesprochene und geschriebene Form erwerben wollen.

Zu den Zwecken werden in dieser Arbeit einzelne Fächer für das Studium der Fakultät vorgeschlagen und vorgestellt.